

전 남

광양동호안 붕괴 공동규명도 '붕괴'

광양 동호안 독 붕괴사고와 관련해 지정폐기물 처리장 운영자인 인선이 엔티씨가 범대책위원회 참여 불참과 포스코와 모든 합의사항 파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인선이엔티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동호사태 합의안 파기에 따른 인선이엔티의 입장정보 문건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양시장, 포스코 광양제철소, 동호사태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이 문건에서 인선은 포스코가 동의 없이 독 압입도 공사비용을 과대계상한 뒤 포스코 건설에 공사를 발주하고 인선이엔티 계열사 전체에 72억원을 가압류해 회사업무에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0월20일 포스코와 합의한 모든 사항을 파기하고 관계당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동호안사태 범

인선이엔티 복구비 72억 가압류에 대책위 불참

포스코 "응급조치과정 합의사항 파기 무책임"

대책위원회도 탈퇴한다고 밝혔다.

인선이엔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호안 독의 임시조치와 항구적 대책을 논의하는 어떤 공의회와 및 장소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을 종료하고 매립장 사업에서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동호안 제방 침하사고의 원인규명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의 중심에 있는 인선이엔티가 무책임한 공식

입장 발표는 비윤리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특히 침출수가 계속 흘러나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역여론과 국감을 통해 응급복구하기로 합의해 복구공사를 진행중"이라며 "또 70억원이 들어가는 응급공사비용의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향후 일어난 구상권 청구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0일 영산강 유역환경청의 중재로 포스코와 인선

이엔티는 사고책임에 관계없이 응급복구를 위한 시트파일 공사와 압입도 시공작업 등 선조치를 시행한 뒤 소요되는 공사비는 향후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시민들은 "이미 발생한 환경사고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관계기관과 기업들이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책임공방만 하고 있어 한심하다"면서 "동호안 사고 이후 어떻게 마련한 합의사항을 파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광양만 동호안 독 붕괴사고는 지난 8월 동호안도로 200여m 밀려나면서 지정폐기물 침출수 일부가 바다로 유입된 사고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김청수기자 pyj4079@



아름다운 남해안 사진으로 감상하세요

전남도는 7일부터 9일까지 전남도청 유선도출에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전남도, 경남도, 여수시 등 남해안권의 9개 지자체가 함께 제작한 남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과 남도 사람들을 담은 '남해안권 사진전'을 개최한다. 사진은 이규철 작 '원도 청산도 다랭이'

(전남도 제공)

장성, 천연자원 신약개발 발판 마련

郡-동신대 업무협약

장성군이 지역의 천연자원을 특화 상품 및 한방의약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6일 군에 따르면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이청 장성군수, 동신대학교 정기연 총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신대학교와 천연물 신약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체결에 따라 장성군과 동신대학교는 장성군의 천연자원인 축령산 관백나무와 산약초를 활용, 신약 및 특화상품 개발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또 정부사업을 유치하고 지역 활

성화에 필요한 각종 프로젝트 개발에도 상호 협력해 계획이다.

장성군은 한방의약 관련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출신 학생이 동신대학교 한방의약 관련학과에 입학할 경우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현재 양 기관이 상호 관련성이 높은 나노바이오 산업과 나노융합 의료부품 소재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업무협약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신약개발과 관련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소득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농협, GAP 인증농산물 홍보·판촉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와 장성군 삼서농협이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4일 광주신세계백화점 식품매장에서 GAP 인증농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를 갖고 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초등교과서에 실린다

내년 도내 4학년 사회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내용이 초등학교 내년 사회 교과서에 실린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이 이날 교과서 편찬 최종 심사회를 열어 순천정원박람회 관련 내용을 도내 전 초등학교 4학년들이 내년에 볼 사회교과서에 실기로 확정했다. 교과서에 실릴 내용은 정원박람회 개요 및 개최일자 문장과 관련 사진 등이다.

이에 앞서 순천교육청도 지난 1월 편찬위원회를 열고 순천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

에 정원박람회 내용을 순천만과 함께 수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순천정원박람회가 최근 지구촌의 핫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장의 표본 박람회가 될 것으로 교육당국이 공감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순천시 박람회추진단에서는 지난 10월 전남도교육청과 순천교육청을 차례로 방문, 정원박람회 및 순천만 관련 내용을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담양군-인재육성재단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담양군과 전남 인재육성재단은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9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6일 담양군에 따르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 5.8%의 높은 금리로 이

뤄지고 있어 도비와 군비 지원으로 대출금리의 1%를 차액보전해 학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나 전남도립대학 등 도내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생과 부모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나 신청은 이달 1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나 군청(061-380-3038)으로 하면 된다. /담양=노정훈기자 cjoh17@

휴양기능까지 갖춘 다목적 댐 만든다

전남 4곳에 건설... 농업·생활용수 공급도

전남도는 산 윗자락에 산불진화, 농업·생활용수 공급 기능과 함께 물놀이 시설 등 휴양기능까지 갖춘 '다목적 사방댐' 건설을 집중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남도는 다목적 사방댐 건설 설치 가능지역 101곳을 선정하는 등 '다목적 사방댐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내년도 전국

총 사업량 10곳 중 4곳을 확보했다.

새로 건설되는 '다목적 사방댐'은 길이 70~80m, 높이 17~20m로 기존 사방댐의 4~6배에 달해 재해 저감효과를 높이고 저수량은 기존 사방댐의 10배인 2만 정도를 늘려 산불진화나 농업·생활용수 등으로 활용된다. 또 댐 주변을 공원화해 편익시설 등을 갖춰 지역주민에게 휴양공간

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조직, 설치 예정지를 중심으로 댐 위치와 구조물 배치 등 세부 추진방법과 구조물의 공법 적용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벌여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원희 전남도 산림소득과장은 "사방댐이 재해 예방기능 역할뿐만 아니라 수자원 확보와 휴양 등 다목적 기능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일기자 cki@

영암군 중기자금융 50억으로 확대

이달 한달동안 신청 접수

영암군이 중소기업자금 지원규모를 50억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6일 영암군에 따르면 관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지원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 협조융자금에 대한 이차지역을 보전해주는 201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을 예년보다 한 달 빠른 이달부터 한 달 동안 접수하기로 했다.

이번 자금 지원계획은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어감에 따라 전년보다 4천만원 증가한 29억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규모도 지난해보다 10억원이 늘어난 50억원으로 확대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용자조건은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로 경영안정자금 등이 필요한 업체별로 2억원 이내 규모로 지원하게 된다.

또 이차 보전율은 거처가간 2년만에 거쳐 대출금리의 총 5.0%를 보전해 준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영암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영암군은 민선 4기 들어 지금까지 166개의 제조업체에 대해 총 222억원의 자금을 지원해준 바 있다. /영암=이상훈기자 lsh@

'아이날기 좋은 세상'

완도 운동본부 출범

'아이날기 좋은 세상' 완도군 운동본부 출범식이 지난 4일 군민회관에서 김경식 군수를 비롯해 차용우 의회장, 장재식 교육장, 김재서 경찰서장, 김경식 해경서장, 사회단체장, 여성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출범식은 결의대선 운동장 서명을 시작으로 결혼출산양육에 친화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도군 종교단체,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청년단체 등 5개 단체가 행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김경식 완도군수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양육사업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문조기자 ejchung@

Table with multiple columns for land auction information, including location, area, and price. Includes a header for 'Korea National Land Auction' and various sub-sections for different regions.